

20개국 183개 업체 참가

항공우주 및 방위산업 분야의 육성을 위해 국내의 유수의 업체를 유치하여 기술교류 및 산업협력의 장으로 마련된 제4회 한국항공우주 및 방위산업전시회(약칭 코리아에어쇼 2003)가 지난해 11월 4일 ~ 11월 9일까지 부산 컨벤션센터(BEXCO)에서 개최되었다.

이번 행사는 20개국 183개 업체(국내 60개 업체, 국외 123개 업체)가 참가하여 554부스에서 자사의 기술과 제품을 선보였으며 7만 명의 관람객이 행사장을 찾았다. 금번 행사는 F-X 사업 대상기종 선정과 관련하여 EU, 프랑스 및 러시아 등의 불참, 장소변경 등 어려운 여건에도 불구하고 국제적 수준의 행사로 재평가받았으며, 2001년에

비해 중국 등 새로운 4개국이 참가하는 성과를 거두었다. 특히 이스라엘 국방차관 등 국외 VIP의 자발적인 참가로 행사의 위상을 격상시키는 계기를 마련하였으며, 상담 및 수주실적면에서도 LOI 1건 및 MOU 3건으로 약 6억달러 규모의 경제적인 성과를 달성했다.

그러나, 동 행사가 동북아시아 최대의 항공우주 및 방위산업전시회로 자리매김하기 위해서는 범 정부차원의 행사추진, 적극적인 예산지원 및 외국 정책결정자를 적극 초청하고, 우리나라 대통령을 포함한 보다 많은 정부인사의 참여로 행사의 품격향상이 요구되었다. 또한, 국내 주요 VIP 및 외국 전문관람객의 적극적인 유치와 행사의 특성을 고려해 활주로가 있는 재경지역에서 개최해야 할 필요성이 입증되었다.



한국 항공우주산업의 부상 정도

금번 행사에는 국내 60개 업체가 참가하였다. 이들 업체들은 항공 우주 및 방위산업분야에서 고유의 사업영역을 확보하고 국내외적으로 입지를 확고히 하고 있는 업체들로 국책사업에서는 서로 협력관계를 유지하면서 우리나라 항공우주 및 방위산업을 이끌어가고 있다. 이번 전시회에서는 한국의 항공우주 및 방위산업을 대표하며 자사의

제품, 장비 및 기술 등을 전시, 소개하고 세계의 우수업체들과 더불어 비즈니스 활동을 벌였다.

특히, 이번 전시회에서는 한국방위산업진흥회의 헌신적인 협조로 로템 등 국내 유수의 방위산업체가 대거 참가하여 명실상부한 항공우주 및 방위산업전시회로 자리매김하는 계기를 마련하였다.



항공우주무기체계 및 UAV 세미나 개최

전시회 기간중에는 대한민국 공군 주최로 “항공우주무기체계 세미나”와 우리협회, ADD, KARI 주최로 “UAV 세미나”가 행사장내 컨벤션 홀에서 각각 개최되었다.

“항공우주력 건설을 위한 무기체계 발전방향”이라는 주제하에 개최된 항공우주무기체계 세미나에서는 Textron 등 해외업체에서 8개의 논문과 연구소, 대학 및 군에서 16개의 논문이 발표되어 전시참가업체의 관심을 끌었다.

④ 우주무기체계 세미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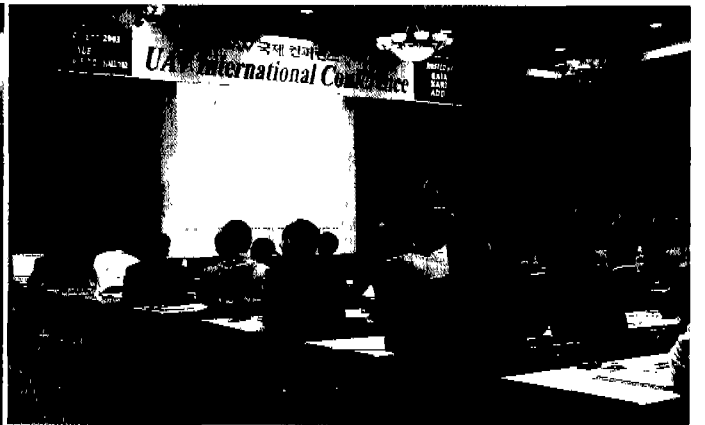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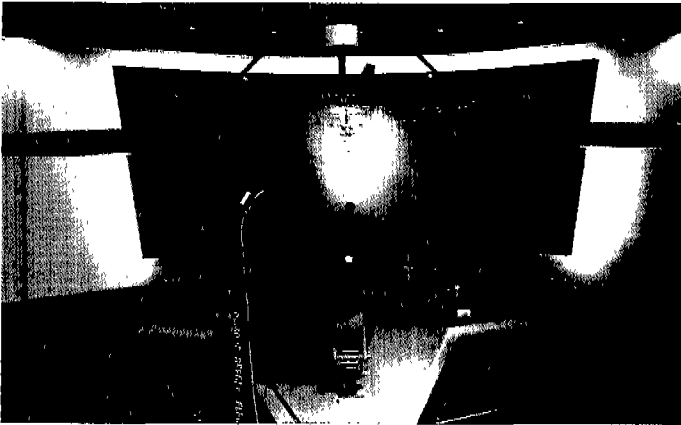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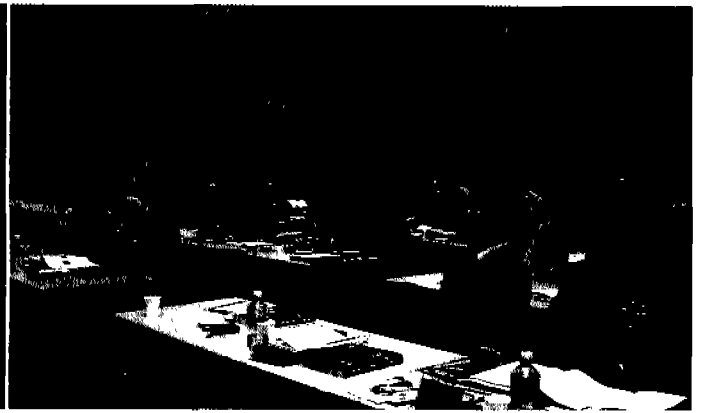
11월 5일 첫날 김호식 박사(국방부)의 사회로 진행된 우주무기체계 세미나에서는 항공대학교 장영근 교수가 “소형 위성의 군사적 활용”을 주제발표로 시작하여, 보잉사 Patrick R. Gill의 “737

AEW&CS and Net Centric Operation”, 노드롭 그라만사 Rosey Rosenberg의 “Litening”, Rafael사의 Micha Ron의 “How to meet the challenge of the mobile targets in the modern battlefield”, 경희대학교 장민환 교수는 “자유공간 레이저 통신의 운용 및 활용”에 대해, 천문연구원 박필호 책임연구원은 “인공위성 레이저 거리측정(SLR) 시스템의 군사적 활용을 위한 기초연구”, 노드롭 그라만사의 Robert Hendrix가 “Aerospace system improvements enabled by modern phased array radar”에 대해 각각 발표했다.

④ 전자전 무기체계 세미나/항공무기체계 세미나

둘째날인 11월 6일에는 전자전 무기체계 분야와 항공무기체계에 대한 세미나가 개최되었다.

전자전 무기체계 분야에서는 보잉사 Janes Kolding의 “Network



Centric Force Modernization for Korea”, 아주대학교 엄환섭 교수의 “고출력 마이크로파의 발달과 군사적 적용”, 광운대학교 최은하 교수의 “전자기 펄스탄 발생기술과 개발” 및 동명정보대학교 김성진 교수의 “잠음재밍 효과분석에 관한 연구”에 대해 각각 발표되었다.

항공무기체계 발전 분야와 관련하여 항공우주정책연구원 김윤주 원장의 “항공우주력의 발전을 위한 무기체계의 미래”, Textron사의 Robert Mullins가 “Precision Strike: Sensor Fuzed Weapon”에 대해 발표했으며, BAE Systems사의 A. A. Cameron이 “Helmet Mounted Sighting Systems”, 경상대학교 김병수 교수가 “DMI 기법의 항공기 비행제어법칙 설계 및 평가연구”, 라파엘사 Eran Peleg가 “AGM 142/Have Lite Stand-off Weapon System”에 대해 각각 소개했다.

◎ UAV(무인항공기) 세미나

국내 최초로 개최된 제1회 UAV 세미나는 항공우주 전문종사자 뿐만 아니라 일반인들의 관심과 저변을 확대시키는 데 일익을 담당했다.

5개국에서 총 13개의 주제발표를 통해 미래 무인항공기 산업에 대

한 현황과 비전을 제시한 본 세미나는 첫날 스마트무인기술개발사업단장 임철호 박사의 “Overview of the smart UAV program”을 시작으로 이스라엘 IAI사 Jacques Chemla의 “30 years of UAV development”, 미래 UAV 추세에 대해 Elisra사 Avi Peleg가 “The future trend in UAV data link communications”을 발표하였다. 이 밖에 일본 야마하 모터사 Akira Sato가 “A Strategic Approach to Unmanned Helicopter”, 세종대 이경태 교수가 “UAV system design curriculum development & application in Sejong University”, 이스라엘 Elbit사 Itai Toren의 “Silver Arrow/Elbit systems HERMES UAV family”, Bell Textron사 Peter Klein의 “Bell’s development of the HV911D UAS”, KAI 김승주 이사의 “Night intruder and its technical maturity”, Elisra사 Dan Eldar의 “MRS 2000 as a complementary system for UAV’s users.” 이스라엘 Elbit사 Itai Toren의 “Sliver Arrow/Elbit systems new and innovative”, 건국대학교 윤광준 교수의 “State of the art and development direction of micro air vehicles”, 프랑스 Thales사 Bruno Jerjean의 “CNI application on UAV”를 각각 발표하였다.

개최

코리아에어쇼 2003은 앞서 언급했듯이 행사장소 변경 및 프랑스, 러시아 대형 업체들의 불참에도 불구하고 2001년도 행사규모의 90%를 달성하여 행사 위상이 제고되었다. 또 정부 및 부산시, 공군 본부의 지원에 힘입어 에어쇼 개최이래 최초의 민 주도의 성공적인 행사를 개최하였다.

또한 해외업체와의 협력확대로 항공우주 및 방위산업 발전기반 조성에 일익을 담당하였다. 약 6억불 상당의 수주실적을 비롯해서 무기체계 및 UAV 세미나 개최를 통한 세계 선진기술 개발현황과 국내 관련 산업의 발전가능성을 보여 주었다. 전시참가비 등 의회획득 (약 130만불)을 통한 국가경제 발전에 기여하였으며, 자라나는 청소년들에게 우주에 대한 꿈과 희망을 심어주는 계기가 되었다.

부수적 성과로는 행사장 조성 및 운영을 위한 관련산업 고용창출 및 관광 및 전시/컨벤션 산업의 대내외 홍보기회 부여를 통해 부산지

역 경제활성화에 기여하였다. 또한, 우천으로 행사에 다소 차질이 발생하였으나 해운대에 부산시민축제 한마당이라는 부대행사 개최를 통한 시민화합을 도모하였다.

그러나, 원거리 개최에 따른 국내 주요 VIP의 행사장 방문실적 저조와 해외 초청 VIP 인원감소로 전시참가자들의 비즈니스 상담실적이 저조하였으며, 우천으로 인한 관람객 유치에 차질이 발생하였고 활주로 부제에 따른 실물 항공기 전시불가 및 시범/꼭예비행 운영에 애로가 발생하였다. 또한, 세계 유수의 항공우주 관련업체들은 우리나라 군수시장에 대해서는 많은 관심을 보여준 반면 군수분야를 제외한 민수분야에서는 활발한 교류나 역할이 기대치에 이르지 못한 점은 사실이다.

따라서, 동 행사가 동북아시아 최대의 행사로 자리매김하기 위해서는 정부의 적극적인 지원을 통한 범 정부차원의 행사로 추진하여 민 군수 모든 분야에서 활발한 비즈니스 교류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기 반을 마련하여야 할 것이다.☺

